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발전 상생 계획 눈길

한전 등 17개 기관 계획 수립 지자체에 사업 참여 요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들이 해당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만들어 광주·전남 자치단체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자치단체들이 이전 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해줄 것을 '읍소' 해오던 방식이 아닌, 이전 공공기관 스스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 계획을 마련해 자치단체 참여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17개 이전기관들은 16일부터 이틀 간 나주에서 열린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이전공공기관·지자체 통합워크숍'에서 기관별 맞춤형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제안했다.

현행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이전공공기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매년 지역발전계획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광주·전남 자치단체들과의 협의·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의 경우 경제활성화·지역민 교류 활동이라는 테마를 설정, 자체 예산을 들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활성화의 경우 청년창업플랫폼·사회적경제 금융장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고 교류활동 분야에서는 청소년 전력사업 체험프로그램(1000명), 1사1촌 자매마을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내비쳤다. 관련 사업비는 전액 한전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KDN과 한전KPS는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거나 PC실 신축·환경 개선 등을 담은 계획

를 제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공사 보유 야구장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도시 8개 기관직원들로 구성된 야구동호회원들이 변변한 야구장을 마련하지 못해 매년 팀당 2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야구장을 빌려 쓰고 있는 점에 주목, 야구장을 리모델링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대신, 나온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야구장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기업들과 자치단체의 리모델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서비스'를 혁신도시로 확산하기 위한 '빛가람페이'를 추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을 주자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미 혁신도시 일부 기관에서 사용중인 만큼 다른 기관들도 확대하고 주변 외부 가맹점을 유치, 활성화하면 카드 수수료 절감 및 일반적 주문 취소 방지, 보안 강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측정시설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집중으로 광주전남지역 전자파 대책에 대한 기술지원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주목, 전자파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을 제안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전기관 직원들과 아동·청소년간 1대1 만남의 장을 마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 사람은 한 권의 책, 휴먼북 도서관' 사업을 제안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애니메이션 지역상영화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다.

농업 관련 이전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개발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교실과 스마트팜 분야 기업·기관들을 연계한 기술 교육·컨설팅 추진 사업을 제안했다.

일부 사업들은 기관 특성을 살린 사업 계획이라고 하지만 기관 고유업무를 지역 발전사업인 듯 제안하는가 하면, 공공기관 자체 사업비도 없이 자치단체나 인근 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도 받아들여지면서 '생색내기식'이라는 시선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공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높이도 달라졌는데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의 시설·환경개선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새 총리 정세균 지명... "경제·통합 초점"

문 대통령 "시대 요구에 맞는 적임자"... 호남 출신 인선 국회 인준 통과하면 국회의장 출신 총리 첫 사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호남 출신인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화합으로 국민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시도록 민생·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경제를 잘 아는 분이며,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타협을

중시하고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 통합·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인사가 행정부 2인자로 가면서 '3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그만큼 정 후보자가 국민 통합과 경제 회생

이라는 절대적 명제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 전 의장 지명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정 전 의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날엔 총리가 이어 또 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

정 후보자 지명은 집권 후반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로 정평이 난 정 후보자를 내각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문대통령 정부 최대 난제인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상공부에 입사해 종합상사인 (주)쌍용 상무이사까지 지냈고,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경제 총리'에 적합한 평이다. 정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 특보를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 때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도 이른바 '정세균계(系)'의 지원자격을 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하는 이낙연 총리를 거론, "이 총리가 내각을 떠나는 계기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게 도리"라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전남 42명 등록

선거법개정안 처리 늦어지고 선거구 획정 난항... 혼란 여전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광주와 전남에서는 4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하지만 '4+1 협의제'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 난항도 우려되는 등 후보들의

혼란은 여전했다. <관련기사 3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다.

광주·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서 19명, 전남에서 23명의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등록절차를 마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0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민중당 5명, 국

기혁명배당금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지역별로 광주 동남갑 3명, 동남을 2명, 서구갑 2명, 서구를 2명, 북구갑 2명, 북구를 4명, 광산갑 2명, 광산을 2명이다. 전남은 목포 2명, 여수갑 2명, 여수를 2

전두환 재판 계엄군들 위증 엄벌을 ▶6면
 인물화로 만나는 한국 근현대 미술 ▶16면
 한국영화 100년... 실미도 천만 관객 ▶18면

명, 순천 4명, 광양·곡성·구례 3명, 나주·화순 1명, 담양·함평·영광·장성 1명, 고흥·보성·장흥·강진 2명, 해남·완도·진도 2명, 영암·무안·신안 4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본사 인사
▶ 임동욱 : 서울취재본부장 겸 선임기자
 (12월 18일자)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정의롭고 따뜻한 고을, **광주만들기**

1 법을 잘 지키는 **준법 광주**

-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주민신고제 운영)
- 불법행위 단속 강화 (불법주정차, 불법대부업, 환경오염물질 배출, 고질악성 체납)
-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그린존 시행

2 차별없이 평등한 **권익 광주**

-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포용적 환경 조성
- 공공기관 성차별·성희롱·성폭력 근절

3 가치, 동행하는 **행복 광주**

- 시민이 믿고 마시는 수돗물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수급자 투명성 강화
- 지역아동센터 부적정 운영 근절
- 나눔과 배려의 내집앞 주차장 품앗이 (쌈지주차장, 주차공간나눔)

4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희망 광주**

- 의료인 사업 발굴·확산 지원 및 홍보
-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운영